


우리는 이미 **변화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2030 #입시경쟁 #사교육고통 #해결 #대중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尹정부 반도체 인재 양성 정책에 관한 분석보도(2022.10.8.)**

지역 대학 반도체학과 43%가 미달!

- 윤 정부 반도체 인재 양성 정책, 오히려 지방대 위기 부추겨...

지난 7월 26일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반도체 인재양성 정책’은 지방 소멸을 가속화 할 것이라는 논란을 지역사회에 촉발시켰습니다. 이에 ‘민형배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해당 정책의 타당성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7월 26일 12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국정목표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세부내용으로는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나아가 85번째 국정과제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제시하였습니다. 수도권 쏠림현상이 대한민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므로 이를 해결하겠다는 다짐이자 국민과 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바로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학과 증원’으로 기존의 약속들과는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가 아닌 ‘나중에 지방대학 시대’를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도체 인재양성은 국가의 산업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지만, ‘A’가 중요하다고 해서 ‘B와 C’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尹정부의 반도체 인재양성 정책은 하나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수도권 과밀화와 교육 인프라 독점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문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자 ‘민형배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몇 가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수도권 대학과 지역대학의 반도체학과 충원율을 분석하여 수도권 증원 논리의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계약학과’의 경쟁률과 수도권 집중률을 분석하여 지역대학 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반도체학과는 전국 22개 대학, 25개 학과에서 2022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였습니다(교육부 자료 기준). 전체 충원율 평균 89.6%였습니다. 22개 대학 가운데 7개 학교가 정원을 모집하는데 실패하였는데 해당학교들은 대부분 지역대학이었습니다. 전체 지역대학의 43%가량이

정원 미달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원광대의 경우는 결국 반도체학과 폐지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표1] 반도체학과 충원율

연 번	입학 연도	지역	학교	계약학과명	학과 정원	입학 생수	충원율(% B/A*100	비고
1	2022	수도권(서울)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30	29*	100	계약학과
2	2022	수도권(서울)	국민대	지능형반도체융합전자전공	96	96	100	
3	2022	수도권(서울)	동국대	물리반도체과학부	63	63	100	
4	2022	수도권(서울)	서울과기대	지능형반도체공학과	30	30	100	
5	2022	수도권(서울)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	70	70	100	계약학과
6	2022	수도권(서울)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50	50	100	계약학과
7	2022	수도권(경기)	가천대	반도체 디스플레이학과	40	40	100	계약학과
8	2022	수도권(경기)	가천대	전자공학부(차세대반도체전공)	50	50	100	
9	2022	수도권(경기)	한국공학대(구. 한국산업기술대)	나노반도체공학과	90	90	100	
10	2022	강원	상지대	반도체에너지공학과	30	19	63.3	
11	2022	강원	한림대	나노융합스쿨	51	51	100	
12	2022	경남	경상대	나노·신소재공학부 (세라믹공학전공)	40	40	100	
13	2022	경남	경상대	반도체공학과	41	41	100	
14	2022	경북	안동대	반도체에너지신소재공학부	68	48	70.6	
15	2022	부산	동아대	반도체학과	45	45	100	
16	2022	부산	한국해양대	전자전기정보공학부 (나노반도체공학전공)	26	26	100	
17	2022	세종	고려대(세종)	지능형반도체공학과	25	25	100	
18	2022	전남	목포대	반도체응용물리학과	20	7	35.0	
19	2022	충남	상명대(천안)	시스템반도체공학과	52	52	100	
20	2022	전북	원광대	반도체 디스플레이학부	30	23	76.7	
21	2022	전북	전북대	반도체과학기술학과	29	29	100	
22	2022	충남	선문대	디스플레이반도체공학과	51	51	100	
23	2022	충북	극동대	글로벌반도체공학과	27	2	7.4	
24	2022	충북	유원대	반도체디스플레이학과	25	24	96.0	
25	2022	충북	중원대	반도체공학과	25	23	92.0	

*고려대의 경우 입학정원 30명을 100% 모집했으나 충원 마감 시한 이후 1명이 입학할 포기해 29명이 입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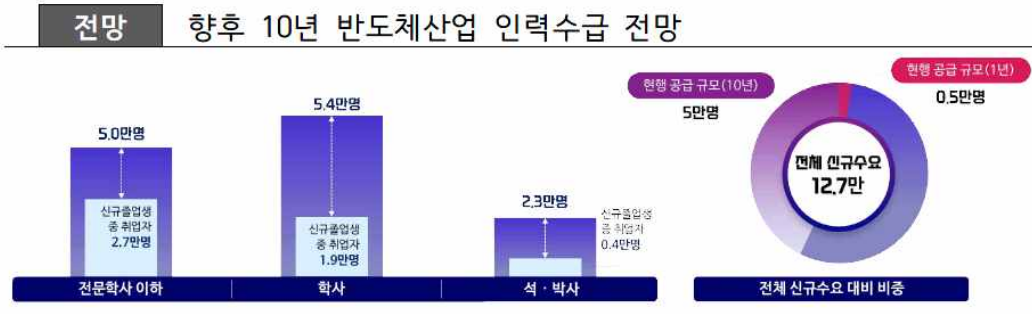
주목할 것은 정부의 반도체 인재양성 논리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관계부처 합동)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림1]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 3페이지

□ **인력수요 급증으로 현행 공급 체계 유지시 인력난 심화 우려**

- (공급 전망) 반도체 시장의 인력수요 급증 대비 절대적인 양성규모 부족,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학사, 석·박사 인력 양성기반 미흡

※ 현재는 직업계고, 전문학사 등 초급 실무인력 중심의 인력공급 구조



◇ 향후 10년간 반도체 산업인력 추가수요 12.7만명에 대응하여,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 확대로 반도체 인력 풀 확대, △반도체 트랙 등 융합교육과정 확대로 반도체 융합형 인재 양성, △재직자 교육 지원 등 강화

정부는 반도체 시장의 인력 부족을 강조하며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과 신·증설시 요구되던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증원이 허용되도록 제도를 변경하였고, 계약학과의 기존 규제를 제외했을 뿐만 아니라 덧붙여 계약정원제도 도입하여 증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얼핏 보면 모든 것이 신속하고 과감해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 해결의 순서가 뒤죽박죽인 우(愚)를 범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반도체학과의 정원이 미달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해결책으로 정원 확대를 내세우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우선적으로 할 일은 지역대학 반도체학과의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를 먼저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통해 ‘반도체 인재양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역대학의 생존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이를 간과할 경우 지역대학은 앞으로도 수도권 대학에 지원하고 남은 학생을 수용하는 위치에 놓일 것이고, 같은 반도체학과여도 서열이 생겨날 것이며, 결국 서열화는 우리가 경험한 바와 같이 끝없는 부작용을 파생시킬 것입니다.

지역대학 위기의 본질은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너무 많은 이권을 집중시켜 놓았습니다. 지역인재들이 계속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역대학 반도체학과의 미달되는 원인 중 하나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반도체 계약학과’의

경쟁률과 해당학과의 수도권 집중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학과는 기업체가 지정한 대학의 학과/학부에 별도의 학과를 신설하여 정원 외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재정지원과 함께, 동시에 졸업 후 우수한 기업에 대한 취업이 보장되는 학과입니다. 반도체 계약학과의 2022학년도 경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2] 반도체 계약학과 경쟁률

대학명 및 학과	경쟁률 (수시+정시)	계약 기업	소재지역	모집방식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	28.7 : 1	삼성전자	서울	정원 외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12 : 1	SK 하이닉스	서울	정원 외
연세대 시스템 반도체공학과	10.3 : 1	삼성전자	서울	정원 외
가천대 반도체·디스플레이학과	1.78 : 1	광우, 엔스펙트라 유니젯, 인포비온 제너코트, 피티에스	경기	정원 외

*출처: 해당 대학 홈페이지

4곳의 반도체 학과는 모두 충원율 100%를 보입니다. 게다가 대기업과 연계된 3곳의 대학은 10:1을 뛰어넘는 높은 경쟁률을 보입니다. 충분한 재정지원과 양질의 노동시장으로 취업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학과들은 모두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만 계속 유망한 학과, 인기 있는 학과를 확장하여 교육인프라 독점을 구축하는 것은 지역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중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해당 사안을 역으로 접근해 보면 반도체 인재양성 정책을 지방대학 중심으로 편성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지닐지 타당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학과와 같은 유망한 반도체학과를 지역대학의 특정 경쟁력이 되도록 정책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과연 수도권을 떠나 지역으로 가겠느냐고 물을 수 있지만, 학문적 조건과 노동시장 조건이 구비될 경우 사람들은 그곳을 단순히 지역대학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카이스트, 포스텍, 최근 한전공대도 모두 수도권에서 떨어져 있지만 학생들이 선호하는 까닭입니다. 반도체 정책은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와 노동시장의 요청이 있는 영역입니다. 반도체 계약학과, 반도체 특성화 대학 등 이를 지역대학들에게 우선 배치하여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위한 묘수는 여기에 있습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인재양성 정책을 다시금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반도체학과들의 정원이 미달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책이 먼저 수립되

어야합니다. 해결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계약학과와 같이 재정 지원과 노동시장이 보장된 여러 경쟁력 있는 정책을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수도권 대학을 두고 지역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기적 안목으로 정부 정책이 현명하게 수립되고 추진되어 간다면 대한민국에서 지역대학을 선택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밝힌 "지방대학 전성시대"를 이뤄내고자 한다면, 반도체 인재 양성이라는 지역적 정책을 넘어 수도권 중심의 대학서열과 지역대학 위기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 종합적 그림을 내놓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만 할 것입니다.

2022. 10. 8.

민형배 국회의원,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 장승진(02-797-4044/내선번호 503)